

사고수사와 책임에 관한 단상(斷想)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검찰에 의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책임추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고수사와,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법률위반을 한 사고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것을 통해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단순한 과실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추급(追及)하는 형사수사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이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고수사가 사고조사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정진우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법학박사)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검찰에 의한 사고수사가 이루어진다. 사고가 고의로 발생하였다면 범죄인 것은 당연하지만, 설령 단순한 과실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추급(追及)하는 형사수사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형사수사는 누가 나쁜지를 특정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벌을 주는 응보 목적의 사고수사이다.

한편, 사고의 원인 규명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두 번 다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고조사도 있다. 즉, 사고의 원인 규명에는 책임추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고수사와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조사가 있다.

위 양자(사고수사와 사고조사)가 상호보완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이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고수사가 사고조사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죄를 물게 되면 사고관계자의 입은 무겁게

제언

사고수사의 목적은
법률위반을 한
사고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것을 통해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증, 증거인멸마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사고수사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를 불충분하게 할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고, 그 시정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사고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인 사고조사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재발방지대책이 불충분하게 되어 사회가 입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소한 실수 정도라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충분한 사고조사를 하여 명백해진 지견(知見)에 근거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다. 쌍방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유익한지는 명백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고조사의 의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충분히 살려지지도 않고 있다.

사고수사의 목적은 법률위반을 한 사고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것을 통해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 전제의 수사는 실제로 처벌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강한 의심을 받아 왔다. 데커(S. Dekker)는 휴면 에러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의료업계, 항공업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 실무자의 휴면에러가 범죄화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실무자가 비협력적으로 되는 문제이다.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실패를 보고하면, 그것을 문제 삼아 책임이 묻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패를 알릴 경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고(Incident)는 잘 보고되지 않게 된다. 그것을 Dekker는 “전문가가 실수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거의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안전은 희생된다”까지 말하고 있다.

둘째,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어떤 실패가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죄가 무겁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후지혜(後智慧)편향=사후확신편향(Hindsight bias)’이다. 결과가 나쁘면 나쁠수록 보다 많은 설명이 요구되고 “그것에 주의했어야 했다”고 비난받는다. 후지혜에 의해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를 찾는 것은 용이하다. 게다가 후지혜 때문에 사소한 과실이라도 죄로 인정되기 쉽다. 이 후지혜는 심

리학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서는 배려되고 있지 않다.

셋째, 수사가 실무자들의 업무성과를 저하시키는 문제이다. 실무자들은 책임이 물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 고독감 등을 느낀다. 그리고 실무에서 질이 높은 작업에 쏟아야 할 주의력이 어떻게 하면 법적 트러블에 말려 들지 않을까에 집중되어 버린다.

넷째, 수사가 반드시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자칫하면 재판은 최일선의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사건의 전체 모습도, 배후의 책임자도 밝히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남은 바람 중의 하나는, 사고의 재발방지와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만은 피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가 사회를 분단시키는 문제이다. 책임자가 특정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된다. 그때 사회는 적과 우리 편으로 나뉘어 공통의 이익이 소실(消失)되고 신뢰와 관계성이 파괴된다.

한편, Dekker는 휴먼에러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법제도의 원래 목적이 축진될 것이라는 근거는 없고, 실무자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다른 실무자가 보다 주의 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대개 착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그가 휴먼에러를 사고의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시스템 내부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발현한 '병상(病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Dekker는 휴먼에러 문제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스템(기계·설비의 디자인, 절차의 유효성, 목적 간의 충돌, 생산 압력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이해하고 있어도, 인간인 탓에 일으키기 쉬운 잘못된 행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휴먼에러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그러한 에러는 크고 작은 비율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재해로 발전하기 이전의 트러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현을 허용하고만 시스템에 눈을 돌려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인 탓에
일으키기 쉬운
잘못된 행위를
'휴먼에러(Human Error)'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제언

이러한 점을 매우 심층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J. Reason이다. 그는 사고를 그 영향이 개인 레벨에서 수습되는 '개인사고'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조직사고'로 구분하고, 조직사고에 대해서는 '즉발적(Active) 에러=당사자 에러'(최일선에 있는 개인의 불안전행위)뿐만 아니라 '잠재적 상황(Latent condition)'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스템의 안전은 다중의 방호층에 의해 지켜지고 있지만, 그 각 방호층에는 구멍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그 구멍의 위치가 모두 일렬로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작업장의 상황 때문에 각 방호층이 프레임 안팎으로 움직이거나 조정, 보수, 시험 동안에 또는 에러와 위반의 결과로 제거되는 경우가 있다(추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각 방호층의 구멍도 작업자의 행위, 작업장의 사정에 기인하여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거나 생겼다가 사라지거나 수축하거나 팽창하기도 한다.

이따금 방호층의 구멍이 나란히 정렬되었을 때 최후의 보루인 제일선에 있는 개인의 '즉발적 에러'가 발생하면, 그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스위스 치즈 모델(The Swiss Cheese Model)'이다. 그런데 수사는 사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불운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

수사의 장(場)에서 수사관과 피의자의 심정에도 문제가 있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피의자가 호된 조사를 견뎌내지 못하고 '가벼운 죄라면 인정해도 무방하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사고의 진상규명은 멀어지고 누군가가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

스위스 치즈 모델(The Swiss Cheese Model)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James Reason)이 구멍이 뚫린 에멘탈 치즈를 빗대 사고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모델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구멍이 불규칙하게 뚫려 있는 몇 개의 치즈 조각들을 일렬로 세워놨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단 하나의 구멍으로 직선을 관통시켜 보자. 두 세 개의 치즈 조각이라면 구멍들 사이로 직선을 관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하지만 치즈 조각이 여러 개라면 하나의 구멍으로 관통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위기에 대응할 여러 장치 중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편집자주

